

언젠가,  
친구와의 이야기 끝에  
나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정말 사진이 없구나'  
하는.  
조금은  
어처구니가 없을 만큼  
아주 짧고 간단한 말이다.  
그러나  
그 충격은 오래 갔다.  
태어난 지 몇 일이  
채 안되어 보이는 나,  
생일케익 앞에서,  
빨간 우산을 들고  
웃고 있는 네다섯 살의 나,  
그리고 점만 다녔다고  
기억되는 유치원에서의  
소풍날, 졸업식 날...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찍었던 사진은  
세 봐야 겨우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적었던 거다.  
내 위의  
언니(女)와 동생(男),  
그들의 앨범은  
유치원 때의 소풍과 야영,  
재롱잔치, 생일잔치,  
심지어는  
부모님 오시는 날까지  
그들의 어린 시절로  
꽉꽉 채워져 있는 데...  
나는 억울했다.  
어린 시절에  
가족끼리 간 유원지나  
공원에서의  
가족사진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다.  
정작,  
'나만을' 위해서  
'나'를 찍은 '내 사진'은  
없었다.

뒤,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다.  
아니,  
난 그렇게  
넘어가고 싶지  
않았던 거다.  
사라진 나의 어린 시절은,  
나의 처음은,  
작고 조그마한  
나의 이야기들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진 거다.  
나에겐 그런 기억은,  
추억은,  
이야기는  
없는 것이 되어버린 거다.

2003년

가을

37집

그건 정말이지  
내가 아무리 둘째였고  
못생겼고  
고집불통에  
말도 안 듣는  
여자아이였어도,  
정말 부당한 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둘째'였고  
'여자아이' 이기 전에  
'나'였는데도.  
나의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걸까?  
나와 비슷한  
가족구성원을 가진  
친구가 있었다.  
그녀도 언니와 남동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녀에게도  
나와 같은 경험이 있었다.  
그녀의 앨범은  
현재까지의  
모든 사진을 합해봐야  
겨우 앨범 한 권이었던  
반면에,  
그녀의 언니와 남동생은  
어린 시절의  
사진만으로 채워진 앨범이  
두세 권은 된다고 했다.  
왜 그럴까,  
나는 나름대로  
상황을 정리 해보았다.

물론,  
비약이 심하다는 건  
인정한다.  
하지만 어쨌든,  
둘째 아이의  
'사진의 부재'는  
명확한 사실이니까. -  
어쩌면  
'소수의 경험' 일지라도.  
나는 왜  
나의 이야기를  
빼앗겼는지,  
소중한 기억조차 사라진 채  
지내왔어야 했는지,  
내가 지금 이렇게  
분노하고 화를 내어도  
실재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건지도 모른다.  
아니,  
확실히 소용없다.  
내가 지금 화를 낸대도,  
억울하다고  
소리소리 지르며  
울어댄대도,  
사라진 나의 어린 시절은,  
기억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

성평등도서관 여기



GL00014530



서울시여성가족재단



